

가을 여행주간 관광객 맞이 나서

내달 1~4일 '순창으로 떠나는 시네마 가을여행' 프로그램 진행

순창군이 가을여행주간을 맞아 다채로운 행사로 관광객 맞이에 나선다.

오는 11월 1일부터 4일까지 순창군 풍산면 향가터널과 순창고추장민속마을에서 '순창으로 떠나는 시네마 가을여행'과 '이단박석 맛있는 순창'이라는 두가지 주제로 순창 쿠킹 클래스, 뮤직페스타 공연 등을 선보인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도내 3곳(군산시, 남원시, 순창군)이 선정돼 가을여행주간 대표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영화 이중석, 박보영 주연의 '피끓는 청춘' 촬영지로 알려진 향가터널에서 영화속 남녀 주인공 되기, 소원연날리기 체험, 목고 자전거 타기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문화관광해설사가 향가터널의 역사적 가치와 의미도 자세히 설명한다.

또한 순창고추장민속마을을 일원에서는 승람도 놀이와 음식체험으로 가족단위 관광객을 유치할 예정이다. 승람도 놀이는 우리나라 명승지를 놀이판에 적어놓고 주사위를 던져 나오는 숫자에 따라 전국을 유람하는 놀이다.



순창군이 가을여행주간을 맞아 다채로운 행사로 관광객 맞이에 나선다.

순창의 역사와 음식문화를 승람도 놀이에 결합해 6개 거점별 미션을 수행한 후에 숨은 식재료를 찾아 돌아오면 선정된 기능인과 함께 요리체험을 하게 된다.

또한 고추장 설화를 바탕으로 전통

무예 공연을 콜라보해 유머와 감동이 있는 공연을 펼쳐 관광객의 눈길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이외에도 메주 농심줄 퍼포먼스, 음식 남녀 끝판벨 등 관광객이 참여할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이 펼쳐진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 문화관광장터 '꽃 담장' 연다

이달 27일·내달 3일과 10일에 걸쳐 남원예촌 문화광장 일원서

남원시는 남원시민과 관광객을 위한 문화관광장터 '꽃 담장'을 10월 13일과 27일, 11월 3일과 10일 모두 4차례 장터와 함께 문화버싱킹, 시민과 함께 하는 파티 '예촌싸롱'을 관한투일 북문 앞 남원예촌 문화광장과 거리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장터 '꽃 담장'은 지역문화 작가들이 참여해 만든 수공예품의 열린 프리마켓과 함께 시민과 단체들이 함께

하는 나눔장터 베품시장, 지역농부와 임자들이 준비한 건강간 먹거리, 문화골동품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또한 외부 초청셀러들이 참여해 장터의 매력을 높이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잇는 나눔과 소통의 행복문화장터를 만들 계획이다.

'꽃 담장'은 친환경 생태문화장터를 지향해 전통과 청정도시 남원의 위상을 정립하고 다음세대를 위한 지속가

능한 마켓을 위한 것으로, 일회용품과 플라스틱을 최대한 안 쓰고 음식물을 남기지 않는 장터를 만들기 위해 그릇과 컵을 대여하는 시스템도 운영할 예정이다.

남원시 유영목 주무관은 "꽃 담장을 시민과 함께하는 나눔과 소통의 새로운 생태문화 장터로 만들고 이를 통해 광한루원 관광객이 남원예촌과 주변 상가로 동선을 형성하는 단초가 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대한민국 작은 도서관 대상

남원시 좋은 열매도서관

남원시는 사)국민독서문화진흥회가 주최·주관하는 2018 책 읽는 대한민국 시상식에서 '작은 도서관 대상'으로 남원시 좋은열매 작은 도서관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남원의 좋은 열매 작은 도서관은 2016년 12월부터 국민독서문화진흥회 활동 협력기관으로, 글쓰기 교육,

서평쓰기 및 나눔, 기부리딩 기부리더와 도서관문화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창의광광 도서미술, 멋글씨 붓펜과정, 캘리그래피 과정 및 신나는 우쿨렐레, 향의미술, 놀이로 배우는 어린이 음악, 오감발달 쿠키 클레이, 아나바다 장터 등을 통해 평소 대한민국 독서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뛰어난 기획력과 헌신적인 노력 등의 공로로 대상인 국화문화



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을 받았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국체전 흥행몰이... 붐업 조성

양궁·사격대회 개최... 전국 관광객 유치

임실군이 제99회 전국체육대회와 전국장애인체육대회의 흥행을 위한 '붐업(Boom up)' 조성에 앞장선다.

군은 지난 12일부터 18일까지 열리는 전국체전과 전국장애인체전(25일~29일)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관내 경기장에서 열리는 경기에 지역주민과 군청 직원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는 한편 임실군 주요 관광지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임실에서는 대한민국 효자종목인 양궁과 사격대회가 열린다. 군은 이들 종목이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은 만큼 경기 관람객이 많이 몰릴 것으로 보고, 민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다.

오수면에서 열리는 전국양궁대회와 국제양궁장에서 13일부터 17일까지 열린다.

국제양궁장은 2004년 박성현 선수가 아테네 올림픽에서 쏘아올린 금빛 활이 시작이 돼 2013년 건립계획을 마련하여 총사업비 98억원을 투입, 부지조성(73,683㎡) 및 주경기장(29,400㎡), 실내훈련장 등 경기운영시설(2,674㎡) 등으로 조성됐다.

사격대회가 열리는 청용면 전라북도 종합사격장은 해마다 사격을 즐기는 관광객이 늘고 있는 가운데

이런 체전을 통해 전국적인 홍보효과를 볼 전망이다.

임실군은 전국체전의 흥행을 위해 군청 실무원소 직원과 지역 사회단체, 지역주민이 하나가 되어 적극 참여한다.

임실을 찾는 선수와 관람객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임실읍과 오수면, 청용면을 중심으로 음식점 등의 위생 및 친절, 맛깔난 음식 등 관광객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임실N치즈축제가 끝난 후에도 많은 인파가 몰리는 임실치즈테마파크 등 주요 관광지를 재점검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지난 9월 끝난 임실N치즈축제가 34만여명의 관광객을 유치한 임실치즈테마파크 일대에도 천만송이가 넘는 국화꽃들을 보기 위해 연일 관광객을 몰리며 전국체전과 더불어 '꽃담장'을 재연하고 있다.

심민군수는 "임실군이 전국체전과 전국장애인체전의 성공적인 개최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선수와 가족, 관람객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민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다"며 "전국체전 흥행을 위해 임실군이 앞장서서 분위기를 조성하며, 임실을 대한민국 명품 관광명소로 알리는 좋은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지역 매아리

남원 상수원보호구역

시설물 17일까지 점검

남원시 상수도사업소(소장 조남도)는 맑은 물 공급을 위한 깨끗한 상수원 확보를 위해 오는 17일까지 상수원 보호구역을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판과 표주 등 시설물을 정비해 무단으로 외부인이 출입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조남도 상수도사업소장은 "상수원의 수질 오염행위는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므로, 깨끗한 수원지를 통해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시민들에게 상수원 보호구역 내에서의 불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중앙지구대

전국체육대회 특별순찰

남원경찰서 중앙지구대(지구대장 이동권)는 남원지역에서 지난 12일부터 개최된 제99회 전국체육대회 및 제38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참가선수들의 안전을 위해 관내 선수숙소와 경기장에 대한 특별순찰을 실시했다.

이동권 중앙지구대장은 "행사기간 숙소 및 경기장 주변에 대한 특별순찰을 강화해 선수 등에 대한 위해 없는 안전한 체육대회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영어페스티벌 개최

임실영어체험학습센터(원장 배숙자)가 주최하는 임실영어페스티벌 행사가 'Open your eyes! Discover the world!'를 주제로 지난 11일 임실영어체험학습센터에서 열렸다.

배숙자 원장은 "올해 11주년을 맞이하는 임실영어페스티벌은 경쟁이 아닌 함께 즐기는 축제의 장으로 마련하였다. 이는 영어를 친근하게 느낄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것이다"며 의지를 밝혔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군 가을철 산불방지 대책본부 운영

순창군이 가을철 산불예방 활동 및 화재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산불방지대책 기구를 운영한다.

20여명의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이 상주해 산불 발생시 즉각적인 출동이 가능하도록 비상근무체제에 들어간다. 군 정성취 산림공원과장은 "산림

이나 인접지역에 불을 피우다 산불이 발생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당부했다.

한편 군은 주요 산불위험지역 6곳에 무인카메라를 설치해 산불발생요인 차단에 노력하고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 N 치즈

별기에 출신 자정환 신부(Didier '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